

李朝人物略傳 (六一) 孝宗朝

；趙翼 金堉 李時白 金益熙 俞榮 柳馨遠...

金滢植(抄)

孝宗朝

趙翼 字는 飛卿이오, 號는 浦渚니 豐壤人이라. 性이 至孝하고 禮學을 博通하니라. 其父 瑩中이 年近 九十하고 翼이 年過六十하며 位至一品이라. 父가 老病으로 委席함에 翼이 每양 同居하야 晝夜不離하고 至誠奉供하니 父 홀로 妄語하야 曰『우리 四寸 趙判書가 나를 愛하니 誠感이로다.』하니 그가 老昏하야 翼의 其子됨을 不知함이라. 父-藥果를 褥下에 藏置하얏다가 翼을 分與하면 老人의 意를 忤할까 恐하야 塵汚를 拭치 아니하고 前坐 甘啗하더라.

金堉 字는 伯厚오, 號는 潛谷이니 淸風人이라. 戶曹判書가 되야 大同法을 設行하다. 己丑에 領議政을 拜하니라.

李時白 字는 敦詩오, 號는 釣岩이니 延安人 延平君 貴의 子라. 上이 일즉 諸國 俗尙을 問한대 時白이 對曰『胡倭는 弓砲를 尙함으로 强하고 我國은 論策賦詩만 尙함으로 弱하나니다.』上이 嘉納하더라. 弟, 時昉의 字는 季明이니 또한 名臣이니라.

金益熙 字는 仲文이오, 號는 滄洲이니 光州人, 沙溪先生의 孫이라. 丙子에 扈駕 하야 督戰御使가 되니라.

俞榮 字는 武中이오, 號는 市南이니 杞溪人이라. 丁丑 斥和罪로 淸人의 迫請에 依하야 林川에 編配하니라.

柳馨遠 字는 德夫오, 號는 磻溪니 文化人이라. 文詞, 兵謀, 師律, 陰陽, 律呂, 天文, 醫藥, 卜筮, 算術, 經濟 等書를 無不精通하야 理氣總論, 磻溪隨錄 等書 數百卷을 著述하니라.

顯宗朝

鄭維城 字는 德基오, 號는 陶村이니 延日人이라. 顯宗 庚子에 右議政을 拜하니라.

洪命夏 字는 大而오, 號는 沂川이니 南陽人, 命耆의 弟라. 孝宗初에 朝著漸淸하고 賢路大開함은 다 命夏의 力이더라. 顯宗 癸卯에 領議政을 拜하니라.

許積 字는 汝車오, 號는 默齋니 陽川人이라. 顯宗 丁未에 領議政을 拜하고 几杖을 賜하다. 庚申에 庶子 堅의 逆獄에 坐死하니라.

李浣 字는 澄之니 慶州人, 忠孝公 守一의 子라. 浣이 宋時烈로 더부러 孝宗의 密諭를 受하야 外로는 君臣의 義를 托하고 內로는 骨肉의 恩을 結하다. 顯宗 甲寅에 右議政을 拜하니라.

金壽恒 字는 久之오, 號는 文谷이니 安東人, 文正公 尙憲의 孫이라. 顯宗 朝에 領議政을 拜하니라. 己巳에 尹鑄 等の 黨論으로 壽恒이 珍島에 被謫賜死하다. 其兄 壽興의 字는 起之오, 號는 退憂니 또한 當時에 有名하니라.

宋浚吉 字는 明甫오, 號는 同春이니 恩津人이라. 筆法이 入妙하고 禮學을 博通하야 巋然히 儒林宗匠이 되니라. 肅宗 壬子에 卒하니 諡를 文正이라 賜하고 孔子廟에 從祀하니라.

尹善道 字는 約而오, 號는 孤山이니 海南人이라. 光海時에 李爾瞻 等の 專政함을 疏論하야 慶源에 被竄하얏다가 仁祖 反正함에 召還하다. 顯宗 丁酉에 宋時烈의 宗統, 嫡統의 禮說을 上疏駁論 하얏다가 三水에 安置하니라.

趙綱 字는 日章이오, 號는 龍洲니 漢陽人이라. 辛丑에 尹善道の 無罪함을 疏論하고 또 焚書의 議를 痛斥하얏더니 三司 啓請 罷職하니라.

金萬基 字는 永叔이오, 號는 瑞石이니 光州人이라. 庚申에 許堅 等を 誅하야 保社勲을 錄하니라.

金得臣 字는 子公이오, 號는 栢谷이니 安東人, 副提學 綴의 子라 得臣이 極히 魯鈍하야 馬史韓柳의 文을 萬餘遍을 讀하고 伯夷傳을 最喜하야 一億一萬三千周를 讀하야 其齋號를 億萬齋라 하니라. 庚戌에 八路大飢하고 翌年에 大疫하야 積尸遍野하야 不知其數라. 其親友-得臣더러 戲謂曰 『今年死者의 數가 君의 讀數와 比較하면 무엇이 만하뇨.』하더라. 其詩가 唐人의게 不讓하 나니라.

湖行絕句 『湖西踏盡向奏關, 長路行々不暫閑, 驢背睡餘開眼見, 暮雲殘雪何々山.』

李惟泰 字는 泰之오, 號는 草廬니 慶州人이라. 宋時烈이 惟泰를 大將才로 薦하야 大司憲을 超拜하다. 甲寅 禮訟에 寧邊에 被謫하얏다가 庚申에 放還하 나니라.